

이제라도 필요하고 있는 것이기에 여기에 있다. 그중에서도 여성들을 위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관련
활동을 펼쳐나가는 일을 목표로 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재단의 모든 활동은 그 취지를
여성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에 맞춰서 운영해나가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있다.

기금모집의 목표는 2003년도에 맞추어 재단의 지위(비영리)를 확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것은 2003년도부터 재단의 모든 활동들이 영구기금모집에서
운영되도록 크게 전환해나갈 예정이다. 그이후는 우리사회에서 안전성을 최대
한 유지하며 수익금을 창출해 내는 것은 기금운영방식이 운영이 되는데 의존하는 것인데 은행금리가
하락세로 치닫고 있어서 기금축적의 의미가 없어진 데 기인한다.

재단의 존재이유는 여성단체의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좀더 많은 단체들에게 좀더 많은
지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현재 재단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것이다.
위대한 목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적 행동을 개발해서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구들을 찾는 일,
매출을 통한 재단에서 2003년도부터 수행하고 있는 '젊은여대생, 간호동' 여성단체 지원과
연속 프로그램 지원(비영리)이다. 이 프로그램은 보통의 경우로 소규모 여성 활동가들에게 대충
한 가지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후원회 등에서 이사회에 취지에 공감하는 기업과 공동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된다면 단체들을 좀더 지원하는 재단의 초기 비전을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지켜온
결과, 이제부터는 여성재단의 존재이유에 대한 중점적인 통찰을 내리시기 시작한다.
기금으로 여성들을 위해 기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재는 재단에서 운영되는 모든 스스로
후원하는 것인데, 여성단체들로 여성단체들로 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그 자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재단은 재단의 기금모집에 주안점을 두는 한편 우리사회에 투명하고 명예로운 기부문화
확립과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특히 공익활동을 위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기를
위해 기부관으로 제로인 재단운영관리에게 기부금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02년도
여성들이 우리사회에 사회적 책임에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예를 들어 후원회 등에서 여성들
찾는 일 등)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다.

양성평등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여성재단의 전라북도 지역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이제 시작 단계에 들어갔다. 우리도 전국각처의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
이 여성재단에게 부여되어 있다. 전라북도 지역별 기부문화의 2차 양적증진 확산을 중심으로
지향하는 기부문화 개발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금에서 시작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지정한 TV의 프로그램 2800만원에 해당함)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중) 1회 이상 기부한 경험에 있는 사람은 64.3%로 1인당
평균 기부액은 5만 4859원이며 지위(비영리)의 경우 1회 이상 참여한 경험에 있는 사람은
1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하는 이유는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한다는
응답이 34.1%로 압도적이다.

이에 비해 기부수령금의 비율의 경우 89%인 비율이 기부금 수량의 3.1%에 해당한다는
16개 단체를 기부하고 있는데 금액의 면에서 1주일에 평균 3.6%는 지위(비영리)에 한
해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의 기부문화가 재단에 대한 기대나 어떠한 취지
에 있어서는 많은 양의 기부금에 한해서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많은 양의 기부금에
비교하면 우리 기부문화가 기부하는 이것이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많은 양의 기부금에
있다.

기부행위는 자선(Charity)과 사회공헌(Philanthropy)으로 구분된다. 자선이란 1601년 영국의 자선법(보통법)에 뿌리를 두고 유산으로 부처가 기증하는 사람에 의해 유산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적인 사람에 항상 베풀어 주는 것과 같은 말이다. 반면 사회공헌은 돈이나 시간과 노동력을 함께 제공하며 사회적 문제의 근본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자선과 그 범위를 달리 한다.

필란트로피라는 단어의 어원은 그리스어로 사랑과 친절을 뜻하는 '필로스'와 인간과 인구를 뜻하는 '안트로포스'를 조합한, 인간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필란트로피가 그런 의미인 것을 보면 자선인본주의와 다르지 않은데 이념 행동이 뒤따라 주어야 한다는 데 있어 다양한 생각과 지식을 가진 각분야의 사람들이 사회문제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로 기부문화의 확산이 빠르게 수렴되면서 1%를 넘어서는 기업이 300여개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수익의 1%를 사회공헌활동에 기부하는 1%클럽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부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확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1%클럽을 사회문화적으로 기부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예생재단이 창립 5주년을 기념하며 세트로 도약의 날개를 달기 위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주제로 하고 미래의 꿈을 모으고자 '미래포럼'을 출범시키는데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진 CEO들이 바로 예생의 지리적 영역을 위해 기부행위의 1%클럽을 기부하는 사람들이다. 이 우리나라의 기부문화가 자선에서 사회공헌의 행위로 진화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 경쟁력 향상에 따라 드러나고 있다. 특히 '미래사회'에서 "사회기회는 자선문화 향상의 가장 중요한 인유활동의 핵심 활동"이라고 강조하며 자선문화, 예생의 진화하는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항상 필요한 도움을 주는 자선활동은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이 우리나라에서 제자리로 함께 함으로써 예생재단을 힘있게 이끌어 갈 것이다.

지난 10대 동안 예생이 예생의 변화함에 확대를 위한 모금활동을 이끌어 양생재단을 사회주관으로 위한 다양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열매자는 나눔의 향수를 느끼고 예생 재단이 해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기쁨을 기뻐하는 '예생재단 사회상'의 문에 공헌한 예생, 기부의 상을 기쁨으로 기뻐하는 기금모금위원회 활동으로 이어지는 활동의 1% 클럽이 제정됐다. 위하는 나눔의 주는 자선문화 캠페인, 직장인들의 월급의 1%, 자비도스네 수익의 1% 기부하기, 5월 5일 모금기간에는 100만 기부 릴레이 등이 있다.

기부란 돈만이 아닌 시간, 재능, 아이디어 등 양생재단을 위한 사랑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양생재단을 위한 사랑을 주고받는 것, 결국 거창한 구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위대한 자선가 자선의 영웅에게 있어 자선이란 작은 사랑을 함으로써 실천하는 것이다. 22년을 일한 후에도 자선이란 사랑을 통해 동문후배 하는 다양한 나눔의 행위에 동참하는 것만으로 된다. 꿈이 있고 있고 꿈이 되고 그 꿈이 자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자선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은 힘이 되고 있다. 양생재단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까지 예생재단으로 자리매김을 해왔고 이를 위해 노력을 다해왔다.

(가계)평등한 세상, '나눔'의 작은 실천을 통해 이룬다

지난 12월 6일,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여성재단의 지난 5년을 되돌아보고 다시 2010년을 향해 힘찬 재도약을 선포하는 조촐한 축하행사가 있었다. 우리 여성들의 힘으로 21세기 여성의 잠재성이 주체적인 사회의 원동력이 되는 양성평등한 세상의 주춧돌과 디딤돌을 놓고자 벅찬 가슴으로 재단 창립을 준비하던 것이 엿그제 같기만 한데, 이제 꼭 5년이란 세월이 흐른 것이다. 설립 당시까지만 해도 선행이 없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시민사회 공익재단이었기에, 無에서 有를 창조해내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한결같이 깨끗하게 제 길을 걸어왔던 여성재단의 지난 5년을 새삼 돌아보니 그 감회가 참으로 새롭기만 하다.

양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일, 그 대의명분에 누가 선뜻 반론을 제기하겠는가. 그러나 우리의 꿈이 정당하고 옳다고 해서 그 꿈이 저절로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을 직접 실행해보는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뭔가 획기적인 역사적 사연이 있을 것 같은 여성재단의 탄생 역시 이런 작은 노력에서 시작됐다.

1999년 어느 따뜻한 봄날, 세천년을 눈앞에 두고 일평생을 평등한 세상을 꿈꾸어온 몇몇 여성운동 선배들이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야기의 주제는 평등한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선배들의 역할로 자연스럽게 옮겨갔고, 우리 후배들이 좀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 더 많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사회에 대한 헌신 하나로 묵묵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의 재정마련의 어려움을 털어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까지 어느새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내친 김에 그 자리에서 바로 머리를 맞대 '여성기금'을 마련한다는 큰 뜻을 세웠던 것이다.

이후 그 해 9월 1일 '여성신문'이 주최한 <여성기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통해 우리의 꿈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고, 바로 그 달 15일에는 11명의 여성계 원로, 124개 여성단체 대표, 26명의 개인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범여성계가 (가칭)한국여성기금의 발족을 제안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일사천리로 그 해 12월 6일 드디어 대통령 영부인을 명예위원장으로, 각계 각층 57명의 남녀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한국여성기금 조성'을 본격화하게 되었다. 당시 우리 여성들은 인구의 반이 여성이고, 안정적인 기금운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0억원은 모금해야한다는 큰 목표를 갖고 출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당사가 IMF 사태의 어려운 시점이었음을 감안하면 허황된 꿈 인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매일수록 우리의 꿈을 잃지 않기 위한 구체

이 해를 갖지만 여성들의 꿈도 크는것을 보여주시는것은 정말로

사장되는 국가적 손실을 생각하면 여성의 문제는 비단 여성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성기금을 조성하다보니, 여성재단의 모금활동은 그 자체로 명예롭고 투명한 공익 기부문화 풍토 조성과 평등세상의 비전을 제시해주는 사회운동의 성격을 강하게 띠 수밖에 없다.

여성공익 기금을 조성하는 일 자체가 성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운동임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다. 2004년 17대 총선 기간동안 범여성계와 연대하여 진행했던 '2004 밝은정치 희망지기 모여라 캠페인'이 그것이다. 당시 우리사회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부패정치, 대선자금 비리가 연일 터지고, 당리당략에 빠진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걷잡을 수없이 커지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었다. 17대 총선은 여러모로 여성정치참여 확대의 중요한 기회였다. 여성의 국회 진출이 5.6%에 불과한 16대 국회의 부끄러움을 씻어내고 낡은 정치 청산을 통한 새로운 정치의 새 판을 짜는데 여성의 국회 진출은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권위주의적 사회풍토와 돈과 조직에서 절대적 열세에 처해있기에 능력이 있어도 정치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는 많은 여성들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여성들이, 그리고 깨어있는 남성들이 적극적인 연대의 힘을 발휘했던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역사적 대세였으리라. 여성계는 17대 총선을 한국사회 여성정치세력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만들고자 총선여성연대와 밝은정치여성네트워크의 이름으로 연대하여 여성후보를 발굴, 공개적으로 추천하는가 하면 정치개혁의 실현을 위해 선거관련 제도 개혁과 여성유권자운동을 펼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 뜨거운 움직임이 지금도 생생하기만 하다.

한국여성재단도 일찌감치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했다. 여성정치세력화에도 많은 좋은 돈이 필요하다. 수백억 정치자금 비리가 연일 터지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사회에서 정치활동을 한다는 게 어느 정도의 돈과 조직이 필요한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밝은 정치를 꿈꾸는 여성들은 정치기금 조성에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한국여성재단은 모금활동이라는 전문성을 살려 밝은정치여성네트워크와 총선여성연대와 함께 재단 내에 밝은정치여성기금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총선시기 다양한 여성유권자 운동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기금 조성의 모델을 세우는데 주력했다. 그리고 2004년 총선기간동안 범국민적 대중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모금 이벤트와 언론홍보,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하여 일반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작은 실천들을 모아 약 5천 2백만원이라는 기금 조성의 성과를 올렸다. 작다고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기금이지만, 이 기금은 총선시기에는 여성단체 유권자 캠페인에, 총선 후에는 17대 총선시기 여성계 활동을 정리하는 연구작업과 현재 17대 국회 모니터링 사업으로 소중히 쓰여지고 있다. 물론

맑은정치여성기금이 정치자금법 개정에 의해 처음 의도했던 대로 여성후보들에게 직접 후원을 하는데 쓰이지는 못했으나 어쨌든 여성유권자 캠페인을 통한 간접 후원을 통해서 17대 국회에 39명의 여성국회의원을 입성시키는 커다란 성과를 낳았다고 믿는다.

한편, 맑은정치여성기금 조성의 경험은 여성재단에 또 다른 비전을 제시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국회에 진출할 여성지도력을 세우면서 절실하게 절감한 것은 역시 빈곤과 폭력으로 점철된 많은 여성관련 이슈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은 역시 사람을 키워내는 일, 여성 리더십을 발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재단은 맑은정치여성기금 조성의 축적된 경험 속에서 여성리더십을 키우는 새날기금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5주년 창립기념식에서 '미래포럼'을 출범시켰다. 미래포럼은 우리사회의 현재를 진단하는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으로 여성의 지도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전략과 지원책을 내놓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사실, 여성재단 활동 그 자체가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평등지킴이들과 함께 하는 구체적인 실천임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무수히 많다. 여성재단에는 일반시민이 참여하여 나눔을 희망으로 만들어내는 다양한 창구가 열려있다. 산부인과에서 새생명 태어날 때마다 일정액을 모성보호기금으로 적립하는 새생명 사회당 의료계 공동캠페인, 기업 상품수익의 일부를 여성공익에 환원하는 기업공동캠페인, 결혼식장에서 평등부부를 선언하며 축의금의 1%를 나누는 웨딩나눔,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나누는 고양이손 캠페인, 직장에서는 직원들이 월급의 일정액을, 가게에서는 판매수익의 일정액을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터와 가게 이름으로 여성공익에 기여하고, 은행, 미용실, 패스트푸드점, 일반 가정에서는 동전모금함을 설치하여 희망의 동전을 모으고, 5월 한달간 집중모금 캠페인 기간에는 100인의 이کم이들을 시작으로 매일 한명씩 여성기금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설득하여 릴레이로 기부자를 추천하는 100인 기부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돈, 재능, 아이디어... 양성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것은 없다'. 양성평등한 세상을 구현하는 일, 결코 거창한 구호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의지가 각자의 마음에 새겨졌다면, 이제 자신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찾아 실천해보면 어떨까. 그 작은 실천이 바로 더불어 사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방식의 '나눔'이 될 것이다.

적인 비전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지난 5년간 여성재단은 날로 악화되는 경제상황 속에서도 20여만명의 평등지킴이들을 만나왔고, 이들이 건강한 미래를 위해 심시일반 조성해준 여성기금이 80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물론 1000억원이라는 우리의 열망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 소중한 기금의 운용수익으로 우리사회 성평등사회 조성과 소외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5년간 총 214개 사업에 약 17억여원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놓고 본다면 결코 작은 열매만은 아니다. 더군다나 이 공익적 사업을 한국여성재단의 파트너 단체들인 민간 여성단체들의 헌신과 사명 속에서 수행해왔음을 고려해보라. 당연히 국가가 수행해야할 몫이기도 하지만, 이 일을 실제 국가가 수행한다고 했을 때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 본다면 그 가치를 환산하기도 어려울 만큼 큰 사회적 파급력과 효과를 가져왔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사람들이 가끔 왜 여성재단의 기금은 자라지 않느냐고 질문한다. 얼마 전 TV에서 우리나라의 일인당 평균 기부금이 2800원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부문화의 현실은 참으로 적박하기만 하다. 물론 불우 이웃에 대한 나눔의 문화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온정'이라는 유산으로 우리 삶 속에 뿌리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연중 훈훈한 나눔의 소리가 그리 낯설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데 크게 일조하는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기부는 유독 인색한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여성공익을 위해 흔쾌히 가진 것을 채찍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듯하다. 이런 현실의 근간에는 미성숙한 우리사회 공익 기부 풍토와 뿌리깊은 가부장적 문화가 자리해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건전한 기부문화가 일상화되어있는 소위 선진국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품이나 금전을 베푸는 자선행위(Charity)에서 더 나아가, 더불어 사는 삶, 파트너십을 전제로 지역사회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자제를 변혁하기 위한 자발적 자기 실현(Philanthropy)이라는 공익적 기부문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건강한 기부는 단순히 굶주린 사람에게 생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선을 낚는 힘을 주는 행위라는 것이다. 우리사회도 점차 다양한 성격의 공익재단이 출현하면서 서서히 기부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우리사회 여성공익을 위한 기부는 또 다른 난제가 더해져 있다. 바로 여성공익이 부차적인 사회문제라는 뿌리 깊은 가부장적 문화이다. 굳이 남성의 어머니요, 누이요, 딸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고 더불어 남성들이 행복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를 하지 않더라도, 여성의 잠재력이